

“희망찬 함평…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

민선 8기 3년

이상익 함평군수

전라남도 함평군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희망찬 함평’을 위한 후반기 비전을 제시했다.

군은 올 하반기에 주요 전략을 보완한 ‘비전사업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민선 8기 3년 동안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복지체계 고도화 △교육·인재양성 기반 마련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 발표 예정인 ‘비전사업 2.0’에는 △RE100 기반 국가산단 330만㎡(100만평) 조성 △미래융합 첨단신도시 225만㎡(68만평) 개발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도 사계절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봄·가을의 대표 행사인 ‘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에 더해 지난해 겨울에는 ‘겨울밤 빛축제’에 8만 명이 방문하며 계절 관광의 폭을 넓혔다. 올해 여름에는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가 새롭게 열릴 예정이다.

지역 맞춤 발전 17개 사업 추진 관광 산업 기반 미래도시 전환

스포츠·여가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 중이다. 오는 2028년까지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AI·ICT 기반 농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함평전지유통클러스터는 지난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3개 품목, 63억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2년간 총 3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축산업 분야에서도 ‘AI 점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 축산단지, 힐링파크, 기자재 클러스터 등을 결합한 6차 산업 모델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정책 효



이상익 함평군수.

과가 가시화되며 2024년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해 전국 7위를 달성했다. 산모 지원, 유아 건강관리, 돌봄 시스템 고도화 등이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올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며 ‘함평형 돌봄·늘봄 교육 체계’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 최초로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인재양성기금 제도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정책도 체계를 갖춰 확장 중이다.

군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센터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일자리, 창업, 정주 지원을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축산자원개발부 등 공공기관 유치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과 고령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도 촘촘하다. 인공관절·안질환 수술비 지원, 치매 및 정신건강 돌봄, 찾아가는 방문 보건 서비스 등 함평형 복지 체계를 실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결과 함평군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생산성 대상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우수상 등 중앙부처 및 도 평가에서 총 110건 수상 성과를 달성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금까지 군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복지·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경육고 원료 ‘지황’ 계약재배 장성군, 농업 성장동력 마련

전라남도 장성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 황실에서 파머스에프(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한중 장성군수, 임선모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지황을 중심으로 한 약용작물 계약재배 △농업 성장동력 마련을 목표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

지황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육고’의 주원료다. 논벼 대신 지황을 재배할 경우 4~5배 높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

2023년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논벼 소득은 10a당 65만원 선인 반면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황 소득은 10a당 3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협약에 따라 파머스에프(유)는 장성지역 6개 농가, 3ha규모 농지에서 연간 30톤의 지황을 수매할 계획이다.

농가의 상황을 고려한 협약 내용이 주목된다. 수매 시 별도의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기로 해 인력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위해 10% 선지급 조건도 포함시켰다.

계약물량도 향후 80톤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신소득 약용작물의 시장경쟁력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약용작물 재배를 지원해 지역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함평군, 물놀이 페스타 연다 7월18일 엑스포공원 일원서



전라남도 함평군 축제관광재단이 오는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총 31일간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과 연계해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를 열

해 첫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함평 물놀이 페스타’는 군이 사계절 축제를 완성하기 위해 봄(나비대축제), 가을(국향대전), 겨울(함평 겨울빛축제)에 이어 기획한 최초의 여름 축제다.

축제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체험 프로그램은 주말(토·일)과 광복절 등 휴일 11일, 공연 프로그램은 8월5일부터 8일까지 성수기와 공휴일을 포함해 총 15일간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바이벌 물총대전 △불꽃대전 △짐강다리 챌린지 등 이색적인 물놀이 체험 콘텐츠와 △EDM 버블파티 △K-POP 댄스파티 등 공연 콘텐츠로 구성됐다.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슬라이드풀, 어린이풀, 워터버킷, 유아풀 등이 물놀이 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편의점과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도 운영돼 방문객에게 한층 더 즐겁고 쾌적한 축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축제가 여름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축제와 엑스포공원을 적극 연계해 사계절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엑스포공원 식물전시관에서는 어린이왕자 의상 체험, 바나나파기 체험 등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한편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7월18일부터 8월17일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환경 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대덕면 주민자치회들이 지난 25일 대덕행복나눔터에서 무료 칼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대덕면 주민자치회, 칼갈이 봉사활동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25일 대덕행복나눔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칼갈이 봉사를 진행했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마을로 찾아가는 행복한 문화나눔(호호락락)’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주

민자치회 위원들과 봉사자들은 가져온 약 200자루의 칼을 정성껏 갈아주고 안전한 사용법도 안내했다.

이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대덕면민의 집에서 직접 썬 은 감자와 옥수수를 준비해 방문한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감자는 최근 대덕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수

확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칼갈이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미형 회장은 “칼을 가는 일은 작지만, 이웃을 챙기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에 필요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영광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검사비 연중 전액 지원

전라남도 영광군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확대를 위해 관련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GAP 인증은 토양과 용수, 농산물의 잔류 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포함하며 농산물의 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군은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 예산 소진 시까지 농업유통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수시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GAP 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농가다.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농가나 생산자단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지역농협과 읍·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GAP 인증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영신 농업유통과장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GAP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통상 수확 한 달 전에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므로 하반기 수확을 앞둔 농가는 서둘러 신청해 주기바란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주민 참여 예산학교 운영 화순군, 주민제안 상시 접수

전라남도 화순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화순군 주민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군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밀접 소규모사업,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대상이다.

이날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강사를 초빙해 주민 참여예산의 배경, 제도의 개념 이해, 제안서 작성 방법,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등 주민 참여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화순군은 주민제안사업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7월30일부터 9월19일까지 집중 접수를 통해 주민들의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주민 참여예산학교를 통해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군민들이 제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